

0804(목) 이사야 56-62장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라!

56장부터는 분위기가 또 한 번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배경은 포로귀환 이후의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통독하며 살펴보았듯,

성전이 재건되고 각종 제의들이 재개되었지만,

귀환공동체의 삶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실현되었으나 새로운 창조는 아직입니다.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돌아온 고국 땅에는 여전히 불의와 폭력이 만연합니다.

약속하셨던 <새 일>은 왜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59:1-2)”

약속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57:17).

그들은 <해방>을 끝으로 여기고 남은 여정에서 중도하차하였습니다.

<뭐가 더 있겠어?>라며 말씀에서 떠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56:1-2,4,7,10-12, 57:1-13, 58:1-5,13, 59:1-15)

출애굽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복된 여정으로 이어졌듯이,

귀환 공동체에도 <해방>보다 더 큰 구원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65:17-25, 66:9-13).

참 자유가 선포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58장, 61:1, 데로르(희년), 레25:10),

열방이 주를 앙망하며 돌아올 만큼 온 세상이 주목할 새로운 일,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56:6-8, 57:18-19, 58:6-12, 59:20-21, 60-63장)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62:6-7)”

나는 약속하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기로 결단합니까?

① 하나님의 일정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완주하기로 결단합니까?

②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스스로 판단하며 중도하차합니까?

시작기도 + 통독 이사야 56-62장